

프란시스코페러와근대학교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프란시스코페러와근대학교
1910 년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외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는 〈프란시스코 페러와 근대 학교〉만을 옮긴다.

는 혁명적 순교자의 전통에서 가장 계몽적인 인물 맨 앞 자리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최초로 그의 전기를 발행했다. 모든 나라가 프란시스코 페러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다. 심지어 진보적이념 측면에서 가장 후진국인 미국에서도 프란시스코 페러 협회가 탄생했다. 이 협회의 목적은 페러의 전생애를 책으로 출판하고 미국 전역에 페러식 근대 학교를 세우는 데 있다. 이런 국제적 혁명의 파도를 보고 누가 페러가 헛되이 죽었다고 말하겠는가?

문주익에서의 그의 죽음은 참으로 훌륭하고 극적이고 인간의 심장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당당하고 깨끗한 내면의 눈이 빛을 향하는 프란시스코 페러에게는 거짓된 성직자도 필요 없었고 그를 저버리는 망령을 비난할 필요도 없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죽어가는 시대이고 자신은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의식은 그 마지막 영웅적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죽어가는 시대와 살아나는 진실,
그 살아남아 죽음을 묻으리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진보할 능력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자기환경을 개척하고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적 독립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 인간은 다른 것에 기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최상의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이념을 승리로 이끌며 행복해하고, 하나의 생명이지만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런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사회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린 따를 겁니다. 우린 열심히 이런 과학자들의 경험을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을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이런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자유의 정신이 지배하는 학교가 될 것이고, 미래의 학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학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현행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조직적 규제와 자연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모든 인위적 장벽들을 우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자연적 본성을 말살하고 아이들에게 기존의 이념을 주입하는 지식 교육과 도덕 교육을 우리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만한다는 두려움이 없는 매력적인 환경에서 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접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삶에 대한 깊은 감동이 까다로운 학문을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어린이가 구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만 우린 과학과 노동의 성취들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때로는 지식의 부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완전히 다 다르지 않는 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 교육적 성취에 안주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작업을 더욱 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현 교육의 주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 지식이나 지적 결함보다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기 쉬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⁵

페러가 차라리 폭동을 조직해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싸우고 폭탄을 던졌다면, 처벌되고 감금됨으로써 오히려 로마가톨릭 교회 측과 독재 정부 측에 그토록 위험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처벌과 구금은 이제 세상 모든 악의 배경이 아닌가?

노예와 순종과 가난과 모든 불행과 사회적 불평등이다 처벌과 감금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페러는 확실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1909년 10월 13일 몬주익의 형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의 죽음이 헛되다고하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분노의 물결이 있었다. 이탈리아에는 페러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생겨났고, 벨기에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운동이 생겼으며 프랑스에서

⁵ 「Mother Earth」, 1909년 12월.

인생살이에서 최고의 경험은 학교이다. 학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좀 열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실수를 범하는 조직적인 제도와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묵인한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프란시스코 페레 (Francisco Ferrer) 라는 이름을 가진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잘 알았고 사랑했다. 스페인 외부에서 페레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09년 9월 1일 스페인 정부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요청으로 프란시스코 페레를 체포했다. 10월 13일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후 페레는 문주익 감옥에 갇혔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배어 있는 가혹한 감옥이었다. 여기서 그는 총살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저 한 사람의 선생님이었던 페레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 전 세계의 문명화된 사람들은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했다.

프란시스코 페레를 죽인 것이 스페인 정부와 로마가톨릭교회가 저지른 첫 범죄는 아니었다. 스페인 정부와 로마가톨릭교회의 역사는 길고 긴 피와 불의 역사이다. 저들은 그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와 국가가 힘 없는 자를 죽이면 더 강력한 거인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거인이 언젠가는 이 가혹한 억압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실현시킬 것이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1859년에 태어났다. 부모님은 로마가톨릭 신자였고 아들이 신실한 로마가톨릭 신자로 자라기를 부모님은 소망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훗날 위대한 진리를 알리는 선구자가 되어 구습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페레는 조상대로 믿어온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량함과 사랑을 이야기한 하느님이 어떻게 무고한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어떻게 교회에서 고문과 고통과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각성하고 문제를 파헤친 결과 오래지 않아 아이가 공할검은 괴물의 실체가 바로 로마가톨릭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레는 로마가톨릭교회와 완전히 결별했다.

로마가톨릭교회 측에서는 온갖 거짓과 허위와 중상모략을 동원하면서 광분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과거 이런 더러운 범죄에 한 번 이상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던, 깨어 있는 양심적인 인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아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이념, 곧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비난을 받았다. 끔찍하다고? 프란시스코 페레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왜 그가 아이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미워하도록 가르치겠는가?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장엄한 일몰 광경을 보여주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하게 하고, 경외로운 산과 바다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는 단순한 방법으로 모든 생명의 성장과 발전과 상호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사악한 참조가 아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페레가 아이들에게 부자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고 말했다고 한다. 옛이야기에 나오는 마녀 이야기일까? 페레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준비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시켰다고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페레는 아이들에게 가난은 부끄럽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며,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악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창조적 노력은 존귀하며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이 창조적 노력만이 삶을 유지하고 자기만의 특성을 기른다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그 저남에게 기생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다. 페레는 반군사적이념을 주입시키면서 군대를 해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말일까? 페레도 톨스토이처럼 전쟁이란 합법적인 살육이고, 전쟁은 증오와 교만을 부채질하고, 민족의 정서를 감아 먹고, 전쟁에 참여한 민족을 광란으로 날뛰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은 것은 분명하다.

근대 교육의 이념과 관련된 그의 말을 들어보자.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모든 가치는 아이의 육체적·지적·도덕적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과학의 경우 사실만으로 과학의 역할을 하듯이 교육도 모든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조주의는 아이들에게 방향 자체를 고정시키고 아이는 그저 뒤만 따르게 만듭니다. 교조주의적 목적을 소멸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적을 존중하게 만드는데 더 어렵습니다. 교육은 항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육자는 선생 자신의 생각과 성향에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선생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본성을 발현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아마 삶의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적 진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약의 극복을 의미하는 완전함을 향해 진보해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 어린이의 구제를 희망할 때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완전히확인된사실하나는그반군사봉기가전혀조직적으로준비되지 않았다는점이다. 반군사봉기는이전의많은혁명사건들처럼대중이우발적으로 일으킨사건이다. 일레로바르셀로나대중들은 4 일동안장악하여통치했는데, 관광객들의말에따르면기존의평화나질서가전혀붕괴되지않았다고한다. 물론일반시민들은아무런준비가없었기때문에실제로권력을잡았을때무엇을해야할지 몰랐을것이다.

이런면에서는 1871 년파리코뮌시절의파리시민도마찬가지였다. 그때의파리시민도아무런준비가없었다. 이들은굶어죽으면서도식량이가득한창고를지키고있었다. 또프랑스은행을지키기위해파수꾼을세우기도했다. 이프랑스은행은부르주아가흙친돈을보관하는곳이아닌가. 바르셀로나의노동자역시자기를지배했던자들이착취해축적한재산을지키고있었다.

이얼마나현형적인패배자의애처로운어리석음인가! 참으로비극적인모습이다. 일반인들을억압하는축제가빠속까지깊이박혀있어그속박을깰수있는상황인데도그렇게하지못했다. 당국과법과사유재산이얼마나외경의대상이었는지자기의영혼을불태우면서도마음의준비가없어예상하지못한상화영서이것들을파기하지못했다.

이런자발적이고비조직적인행동에페러같은인물이연루됐을거라고누가생각할수있겠는가? 이런투쟁은결국패배, 처절한패배로끝날수밖에없다는사실을페러라면당연히알지않았을까? 아니, 그가직접참여했다면노련한지도자로서용의주도하게이봉기를조직하지않았을까? 이런모든증거가불충분하다면페러가무죄라는것을입증할다른결정적인증거를대보겠다. 그의무죄를입증할다른증거가많지만.

봉기가발발하던당일인 7 월 5 일페러는합리적교육연맹 League of Rational Educaion 소속회원들과선생님들과의회의를소집했다. 이회의는가을 사업을논의하고특히엘리제르클뤼 (Elisée Reclus) 의위대한저서 『인간과대지 L'Homme et la Terre』 그리고표트르크로포트킨 (Pyotr Alexeyevich Kropotkin) 의 『프랑스대혁명 Great French Revolution』 출판문제를논의하는자리였다.

만약혹시라도페러가이봉기를알고그회의에참여했다면, 동료들이자신과함께있으면생명이위험할수도있다는걸알면서도이렇게친구들과동지들을그날바르셀로나로불러들었다면그는정말뻘뻘스러운냉혈한이아니겠는가? 하긴사악한마음을갖고있는로마가톨릭예수회의범죄자들이라면얼마든지의도적으로친구들을불러죽게만들수있다는생각을하고도남을것이다.

프란시스코페러에게는평생동안할일이있었다. 만약그가이봉기를지원하게되면그는자기모든계획을다놓고연을것이라고는파멸과재앙뿐인상황이었다. 페러는일반인의분노에담긴정의를의심했기때문이라자기의일, 자기의희망, 자기의본성때문에라도그런일에관여할수없었다.

프란시스코페러는진리에대한회의론자이면서진리를찾는구도자였다. 또한반골이기도했다. 그의정신은조국스페인의철권통치에대한분노로타올랐다. 용감한애국지사빌라캄파 (Villacampa) 장군이이끄는일단의반란군이공화주의의깃발아래스페인정권을공격했을때젊은프란시스코페러는누구보다도열정적으로이투쟁에앞장섰다.

이들의공화주의의상을미국의공화주의와혼동하지않기바란다. 아나키스트로서나라틴국가들의공화주의자들에전적으로찬성하지않지만이들의의상은부패하고반동적인미국의정치집단들보다는고상하다는사실은안다. 미국에서는바로이런부패한반동적집단이자유와정의를모두파괴하고있다. 마치니와가리발디의추종자들은진보와자유주의의최초의적이었지만그들의노력이전제주의의전복을성취해냈다는점을사람들은깨닫고속고해야한다. 미국은바로그반대였다. 공화주의는기득권세력, 제국주의, 독과점, 모든자유주의세력을절멸시키는편에섰다. 그이상 ideal 은느끼한맥킨리 (McKinley) 였고오만하기짝이없는루스벨트 (Roosevelt) 였다.

스페인의공화주의투사들은진압되었다. 오랜세월동안굳어진바위같은, 히드라같은괴물로마가톨릭교회와스페인왕권의골수를깨부수기에한번의노력은역부족이었다. 이소규모집단의영웅적행동에는체포와박해와처벌이뒤따랐다. 이추적을피할수있었던사람은안전한곳을찾아해외로나갔다. 프란시스코페러도이들과함께해외로도피했다. 그는프랑스로갔다.

새로운땅프랑스에서그의정신은얼마나확장되었던가! 자유와이상과실천의요람프랑스! 파리는우울한구식의그림자를건고늘젊음으로활기차고불볏으며, 생명의맥박이힘차게뛰는곳이었다. 파리는페러에게신선한영감을주었다. 이런분위기에서젊은이상주의자는멋지게성장했다.

프란시스코페러는시간을허비하지않았다. 굶주린사람처럼자신을다양한자유주의운동에던졌다. 온갖류의사람들을만나고많은것들을배우고흡수하면서그의사상은성장했다. 파리에머물면서페러는근대적학교의운영상황을보았다. 이때의경험이페러의인생에결정적으로중요한역할을했다.

프랑스에서의근대적학교는규모는작았지만페러가오기훨씬전에설립되었다. 첫근대적학교의창설자는따뜻한정신의소유자루이즈미셸 (Louise Michel) 이었다. 의식적으로든무의식적으로든우리의위대한루이즈는오래전에미래는젊은세대에달려있다는사실을감지했다. 그래서젊은이들을파괴적인제도, 곧부르주아학교로부터구해내지않으면사회악은계속존재하게될것으로인식했다.

노르웨이극작가입센 (Henrik Johan Ibsen) 과함께루이즈는당시사회분위기가유령에게짓눌려있고, 어른들은너무나많은미신에사로잡혀있다고생각했다. 하나의유령을타도하면 99 개의다른유령들이나타났다. 이유령들을다물리치고완전히다시태어나는사람을소수에불과했다.

하지만어린이에게는극복해야할전통이나인습이없다. 어린이의마음은과거의이념으로짓눌려있지않고어린이의가슴은계급적차별에멍들지않은상태다.

아이들은조각가가점으로조각품을만들듯선생님이만들기나름이다. 결국어린이라는미완의세계가예술작품이되느냐아니면별볼일없는모조품이되느냐는가르치는선생의창조적힘에달려있다.

루이즈미셀은어린이의마음을조각하는데아주뛰어난재능을지녔다. 루이즈자신이어린이와같은천진한천성을지녔기때문이다. 그는따뜻하고부드럽고세속에물들지않았으며온화했다. 루이즈의마음은사회적부정을볼때마다뜨겁게불타올랐다. 파리의시민들이사회적불의에항거할때루이즈는항상그선두에섰다. 억압받는민중을위한헌신의대가로루이즈가감옥에서고초를겪고난후몽마르르의작은학교는곧문을닫았다. 그러나이미씨앗은뿌려졌고, 프랑스의많은도시에서근대적학교가태동했다.

근대적학교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사람은늘젊은마음으로평생을산폴로뱅 (Paul Robin) 이다. 몇몇친구와함께그는파리근교의아름다운섬뽀 Cempuis 라는곳에커다란학교를하나세웠다.

그는부르주아식의유전개념은단지젊은이들의끔찍한범죄에대항사회적책임을회피하려는핑계에만불과하다는사실을증명하려했다. 아버지의죄때문에고통받아야했던아이들이부모가유산을남긴것이없기때문에계속가난과도덕적타락속에서벗어날수없고술주정뱅이나범죄자로자랄수밖에없다는논리는폴로뱅의아름다운정신으로이해하기에는너무불합리한것이었다.

유전적요소도작용하겠지만다른요소들역시중요하다고그는생각했다. 유전적외적요소들이더크지는않을지라도유전적원인을제거하거나최소화하는작용을다른요소들이할수있을것으로믿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이적절하고, 자연의자유를만끽하고, 적당한운동을하고, 사랑과동정심을배우고, 무엇보다어린이가필요한것에대해깊이이해해주면무고한아이에게부여되는잔인하고부정한범죄를저지르기쉬운요소들을없앨수있을것이다.

폴로뱅은소위최고의부모들에게서자란자기아이들을선택하지않았다. 그는가재도구를갖고다니며어디든필요한곳으로갔다. 거리에서오두막에서, 고아원과버려진아이들이모여있는곳과교회소와그밖의모든어두운사회적그늘에서일을했다.

이사회는양심이라고는없이그저사회적평안을위해가련한희생자들을눈에띄지않는곳에처박아두었고, 로뱅은이들을찾아갔다. 로뱅은자기가만든학교가수용할수있는한치대로, 더럽고버려지고추위에떠는아이들을모아섬뽀로데려왔다.

이곳의아름다운자연에둘러싸여자유롭고제약을받지않는상태에서아이들은잘먹고청결을유지하고깊은사랑과이해심을배웠다. 이어린이식물들은자신들의친구이자스승인폴로뱅의기대이상으로잘자라나꽃을피웠다.

아이들은자립적이고자유를사랑하는사람으로성장했다. 일반사회제도란가난한자를계속가난하게만드는끔찍한제도가아니고무엇인가. 섬뽀는프랑스에서금지된남녀공학위반이라는이유로프랑스정부에의해폐쇄되었다. 하지만

그러나로마가톨릭교회는뭐든할수있었다. 로마가톨릭교회에는사법부라는숙련된측근이있었다. 로마가톨릭의적을재판하는것은최악으로정의로운재판이되었다.

10 월 4 일페러는루마니테에다음과같은내용의편지를보냈다.

“1909 년 10 월 4 일감방에서,

사랑하는친구들, 나의절대적인무죄에도불구하고검사는사형을구형하고있네. 그근거는경찰을비난했다는것과내가세계아나키스트의괴수로프랑스의노동조합결성을지시했고, 세계곳곳의반란과음모에연루된죄가있다는것이야. 내가런던과파리로여행한것도다이런목적과연관되었다고말하더군.

이런터무니없는거짓말로나를죽이려하네.

심부름할사람이곧떠나려하네. 시간이없군. 경찰이재판관에게제출한모든증거는거짓말과중상모략으로가득한휴지조각에불과하네. 나를해칠증거가없는데도아무소용이없어.

페러”

1909 년 10 월 13 일페러의마음은너무나담대하고강인하고성실하고고요했다. 바보같은사람! 페러의마지막고통스러운맥박은꺼져가고있다. 그때문명화된세계에서는그의맥박이고동치고있었다. 그맥박소리가엄청난천둥소리로커져온밀한범죄를저지르는자들에게저주처럼울렸다. 검은옷을걸치고경건한표정을짓고있는이성직자살인자들을정의의심판대에세우라!

프란시스코페러는반군사봉기에참가했는가? 마드리드의로마가톨릭신문에실린첫번째기사장에따르면그는전혀봉기에참여했다고기소된것이아니었다. 이기사장에는바르셀로나의대주교와모든고위성직자들이서명했다. 이기사장의핵심내용은프란시스코페러가무신론학교들을조직하고무신론문헌들을배포한죄를언급했다. 그러나 20 세기에무신론적신념때문에화형당하는일이있을수없었다. 무언가다른조작이필요했다. 그래서봉기를선동한혐의가추가되었다.

지금까지알아본어떤권위있는자료에도페러가반군사봉기와연루되었다는증거는단한건도찾을수없다. 그런데당국자는증거가충분하다고했다. 확실히 72 명의증인이있다고했다. 그러나그증인들과페러는단한번대면한적도, 함께있던적도없다.

페러가그봉기에참여했을거라는심증은가질수있지않을까? 가능하지않다고본다. 그이유는이렇다. 프란시스코페러는훌륭한선생님이었을뿐만아니라의심할바없이뛰어난조직가이기도했다. 1901~1909 년까지 8 년간그는스페인에 109 개의학교를만들고, 자유의식이있는사람들을설득해자유로운학교 free school 를 308 개나별도로만들게했다. 학교일과관련해서페러는현대적인인쇄기기를도입하고전문번역가들을조직하여가장이성적이고근대적인과학저술과사회학저작 15 만부를배포했다. 이렇게가장뛰어난조직가가어리숙한짓을할리는없다.

페르는알폰소 (Alfonso X III) 암살기도사건이있었던 1906 년거의체포될 뻔했었다. 그러나페러에게아무런혐의가없다는증거가너무나분명해이검은까 마귀⁴들도어찌할수없었다. 로마가톨릭측에서는일단페러를나두기로했다. 그들은때를기다렸다. 적들은희생자가걸리도록덧을놓고는굿하게기다렸다.

마침내 1909 년 7 월스페인에서반군사봉기가발발했을때페러를잡을기회는왔다. 봉기는혁명역사에서가장주목할만한반군사주의적항거였다. 수세기에 걸쳐군항발에짓밟힌스페인국민들은더이상참을수없었다. 국민들은군인들의 무익한학살에동참하기를거부했다. 용감한리프 Riff 족이자기자들의독립을위해 싸웠듯이독립을위해스페인정부에항거하는소수민족을짓밟고억압하는스페인 독재정부를지원할이유가없었다. 스페인국민들은소수민족을향해충을들라는 정부의요구를거부했다.

1 천 8 백년동안로마가톨릭교회는평화의복음을설교했다. 그러나사람들이 실제로이복음을실천하려고하자로마가톨릭측은국민들에게충을들게하라고정부당국에촉구했다. 그리하여스페인왕조는러시아왕조가그랬듯살인적인방법을취했다. 국민들은강제로전쟁터로끌려나갔다.

국민들의인내심은한계에달했다. 이전까지가만히있던스페인노동자들이자본가에게대들었다. 거머리처럼노동자들의힘과생명과피를빨아먹는자들에게 대항했다. 그랬다. 스페인국민은교회와성직자들을공격했다. 그러나저들수천 명의목숨이날아간다해도스페인국민에게저지른엄청난폭행과범죄의대가를다 치를수없었다.

프란시스코페르는 1909 년 9 월 1 일에체포되었다. 10 월 1 일까지도페러 의친구들과동지들은페러에게무슨일이일어났는지도몰랐다. 10 월 1 일한통의 편지가아나키스트단체인루마니테 L'Humanité 에전달되었다. 이편지를통해 페러에대한재판갈지도않은재판의전모를알수있었다. 10 월 2 일에페러의동료 솔레다드빌라프란카 (Soledad Villafranca) 는다음과같은편지를받았다.

“걱정할필요는없네. 자네도알다시피난전혀혐의가없어. 오늘난특별히기쁘 고희망에차있네. 오늘에서야자네에게처음으로편지를쓸수있게되었네. 내가체 포된이후처음으로일광욕도할수있었네. 내감방창으로따뜻한빛이들어오거든. 자네역시즐겁게지내야하네.”

불쌍하게도페러는 10 월 4 일까지도자기가죽게될것이라고는믿지않았다. 더욱불쌍한사실은페러의친구들과동지들도로마가톨릭교회라는적이정의감을 갖고있을거라고믿는큰실수를지질렀다는것이다. 사법부를다시한번믿은결과 형제의죽음을자기는앞에서목도하게되었다. 이들은페러를구할준비조차못했다. 항의조차하지못했다. 전혀못했다. 왜? 페러에게유죄판결을내리는것이불 가능하다고믿었으니까. 그는무죄였으니까.

그때까지운영된것만으로도모든선진적교육자들은이런교육이충분히가능성이 있다고인정하게되었다. 이런교육을통해근대적교육방법에커다란자극제가되 었고, 교육체제는조금씩그러나필연적으로붕괴되었다.

선프에이어유사한많은시도들이있었다. 이를시도한대표적인인물들로는 『자유로운사랑 l'Amour Libre』 의천재적작가이자시인인마들레네베르네 (Madelaine Vernet) 와세바스티앙포레 (Sebastian Faure) 가있다. 포레는 ‘라루쉬 La Ruche’¹를지었는데나는 1907 년파리에머물때이곳을방문했었다.

몇년전포레동지는라루쉬가세워진대지를사들었다. 비교적짧은기간에그는 황무지를꽃이활짝핀땅으로바꾸었다. 아주잘정돈된농장과같은모습이었다. 세 개의건물로둘러싸여있는커다란정방형마당이있고넓은길을따라가면정원과과 수원으로이어진다. 이길을따라방문객들이드나든다. 이곳정원은많은식물들로 장식되어있는데어떤종류의식물들이라루쉬를장식하고있는지는오직한사람포 레만이안다.

세바스티앙포레는아이가모순된영향력을동시에받으면결과적으로발전에 장애가온다고보았다. 오직물질적으로궁핍하지않고, 가정이위생적이고, 지적 인분위기가조화를이룰때아이는건강하고자유로운인격체로자란다.

세바스티앙포레는자기가만든학교에관해다음과같이언급했다.

“나는 24 명의남녀학생들을데려왔는데이들은고아거나부모가있어도너무 가난해양육될수없는상황에처한아이들이었습니다. 내개인의돈으로이들에게 옷을입히고숙식을제공하고교육을시켰습니다. 12 살이될때까지이들은건전하 고기초적인교육을받았습니다. 12 살에서 15 살사이에도교육은계속되었는데 각자의취미와능력에따라약간의직업교육을받았습니다. 그이후에는라루쉬를 떠나바깥세상에서자기삶을살자유가있었습니다. 물론다시돌아오고싶다면언 제든지돌아올수도있지요. 부모가자식을맞이하듯돌아오는아이들을환영할생 각입니다. 그리고아이들이우리학교에서계속일하기를원하면다음과같은조건 을따르면됩니다. 노동이익의 1/3 은기본비용으로계산된다. 1/3 은새로들어오 는아이들의숙식을위해운영되는자금으로저축된다. 나머지 1/3 은개인용으로 사용될수있다.

내가돌보는아이들의건강은완전했습니다. 깨끗한공기, 영양이풍부한음식, 야외에서의운동, 위생적인환경만들기, 짧은시간동안이루어지는흥미있는교 육, 그리고무엇보다아이들에대한우리들의애정어린이해와보살핌으로아이들 의육체적정신적건강상태는정말좋았습니다.

우리아이들이이룰수없는것을성취했다고주장하는것은온당치않습니다. 이 전에좋은기회를얻지못했던보통의아이들이임에도불구하고이들이얻은결과는매 우만족스러운것이었습니다. 이들이얻은가장중요한것은, 보통학교의아이들에게 보기어려운특징, 즉공부에대한애정, 알고자하는욕구입니다. 아이들은새로운

⁴ 로마가톨릭성직자들.

¹ 벌집이라는뜻.

공부방법을배웠습니다. 빨리암기하고상상력을자극하는공부법입니다. 우리는 주변환경에대한아이들의흥미를일깨우는데심혈을기울였습니다. 관찰과조사와성찰의중요성을일깨워줬습니다. 그래야아이들이성장했을때귀머거리나소경의수준을면할수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은뭐든지절대맹목적으로수용하지않습니다. 항상탐구하는자세를갖고, 자신의의문이철저히해결될때까지자주하지않습니다. 아이들의정신은불완전하고불충분한해결책으로생기는의혹이나두려움에서해방되었습니다. 아이들의성장이방해되고자신감이결여되는이유는바로불완전한문제해결에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서로에게얼마나솔직하고친절하고다정다감한지놀라울정도입니다. 라루쉬에서는아이들자신과어른들간의조화가너무나잘이루어집니다. 우리가단지어른이기때문에아이들이우리를존경하거나또는두려워한다면참으로슬픈현실입니다. 우리는아이들이사랑과자신감을갖도록최선을다했습니다. 의무를부과하기보다는이해를, 두려움대신에자신감을, 그리고엄격함대신애정을주었습니다.

아이들의정신속에동정심과친절함과관대함이얼마나풍성하게숨어있는지사람들은잘모릅니다. 참된교육자의노력만이이보물의문을열수있습니다. 아이들을자극하여최상의그리고가장고상한성향들을불러내는겁니다. 자연의식물이자연스럽게꽃잎을피우는것을보는것도큰보람이지만인간이라는식물이성장하여참된한개체로성장하는것을보는것자체가얼마나큰보상인지모릅니다.”²

역사교육과여전히계속되는옛날식교육방법에대해세바스티앙포레는이렇게말한다.

“우리아이들에게참된역사는아직쓰여지지않았다고설명합니다. 참된역사는인간성을성취하기위해노력하다이름도없이죽어간자들의이야기라고말합니다.”³

프란시스코페러는이런근대적학교교육의시도를받아들였다. 그는근대교육의가능성을보았다. 이론적인면에서뿐아니라일상에서도실제로적용할수있다고그는생각했다. 로마가톨릭성직자들과군인이라는이중의굴레를벗어던지기위해다른어떤나라보다도스페인에이런학교가필요했다.

스페인의전반적교육체계는로마가톨릭교회의손아귀에있다. 로마가톨릭의교육원칙은이렇다. “아홉살이 지나면다른사상에몰리기때문에그전에아이들의마음에로마가톨릭을주입시켜야한다.”이런상황에서페러는자기나라사람들에게새로운빛을비추어야한다는커다란의무감을느꼈다. 마침내운명적으로페러는자신의원대한꿈을실현시킬수있는지원을받는다.

프란시스코페러의제자인뢰니에부인 (Mlle. Meunier) 이페러의근대적학교프로젝트에관심을갖게되었다. 그녀가죽었을때페러에게약간의소중한재산과학교기금으로매년 1 만 2 천프랑의수입을남겼다.

무엇눈에는무엇만보인다는속담이있다. 로마가톨릭교회는자신들의비열한죄악을정당화하기위해페러의인격을모독하는비열한방법을동원하였다. 즉페러가뢰니에부인의돈을소유하려고그녀와친밀한관계가되었다는거짓소문이미국로마가톨릭계신문마다실렸다.

한남자와여자의친밀한관계는어디까지나당사자의문제, 그들만의성스러운관계라고나는개인적으로생각한다. 그래서나는페러와관련되어유포된무수한거짓말중에뢰니에부인과관계가거짓이아니라할지라도나로서는이문제와관련해조금도비난하고싶은생각이없다. 물론로마가톨릭성직자의위선을잘아는사람들은이문제의진실을이해할것이다. 로마가톨릭성직자들은여성을성적상품으로만보지않는가? 수녀원과수도원에서벌어진역사적자료들을보다라도이사실은분명하다. 그러니로마가톨릭성직자들은남자와여자의협력을성적인것으로밖에이해하지못하는것이다.

사실뢰니에부인은페러보다꽤나이가많았다. 그녀는어린시절에인색한아버지와순종적인어머니와함께지내면서어린시절의사랑과기쁨이얼마나중요한지잘알았다. 그녀의눈에비친프란시스코페러는기계처럼학교에서졸업장이나만들어내는그런사람이아니라가르치는일에천재적재능을타고난참된스승이었다.

교육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두루갖추었고, 무엇보다가르치는일에대한불타는소명의식으로무장한우리의동지페러는스페인으로돌아와필생의사업을시작했다. 1901 년 9 월 9 일첫번째근대적학교가문을열었다. 이학교를바르셀로나시민들은열광적으로반기며지지했다. 개교식때짧은연설을통해페러는자신의계획을동료들에게펼쳐보였다. 그는이렇게말했다.

“나는연설자도선동가도투사도아닙니다. 나는선생입니다. 나는무엇보다아이들을사랑합니다. 나는아이들을이해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자유를위한나의헌신으로젊은세대가새로운시대를맞이할준비를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그의동료들은로마가톨릭교회측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하는것에대해신중하게재고해달라고페러에게당부했다. 로마가톨릭교회가반대자에대해어떤짓을할지잘알았기때문이다. 페러역시이점을잘알고있었다. 페러는과거의학교처럼번지르르한거짓말에불과한교육목표를내세우면서근대적학교를세울마음이없었다. 그는아이들에게솔직담백하고공개적이고자했다.

프란시스코페러는로마가톨릭측에찍힌인사가되었다. 학교를여는첫날부터그는감시를받았다. 학교건물도감시대상이었고, 만가트 Mangat 에있는그의작은집도감시당했다. 그가가는곳마다미행이따랐고심지어프랑스와영국에서동료들을만날때도감시가붙었다. 숨어있는적이올가미를당기는것은시간문제였다.

² 「Mother Earth」, 1907.

³ Ibid.